

## 1/21(금) 출애굽기 16-19장 주님 외에 다른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험을 치룹니다(16:4).

선민 이스라엘에 걸맞게 좋은 점수를 받고 통과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늘 불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늘 먹고 사는 것, 욕망에 사로잡힌 본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독하며 백성들의 됃됨이를 살펴보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십시오.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 하나님께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과연 이스라엘에게 다른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였고, 말살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출애굽 했지만 곧 홍해와 추격하는 병거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을 노리는 적들이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누이 출애굽 구원을 언급하십니다(16:6).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마실 물을 내십니다(16:12,17:6).

공격하는 <아말렉>을 치시며(17:16) 도움을 줄 <이드로>를 보내십니다(18:13-27)

하나님 없이 백성들은 결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그네지만, 주님이 도우시면 구원받는 것입니다(18:3-4).

(출14:15,19-20,15:16 신1:31,8:15,32:11-12, 시136:16, 호11:3-4, 암2:10)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불순종으로 점철된 2개월 광야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시내산 언약 가운데로 받아들이십니다(19:1-6).

주님 외에 다른 수가 있으십니까?

❶ 나의 인생에 <출애굽> 해방의 경험이 있습니까?

❷ 나의 인생에 <만나와 메추라기>의 경험이 있습니까?

시작기도 + 통독 출애굽기 16-19장 (18:21)